

유아교육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경험이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주는 의미 탐색

장은주, 조혜선*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Exploring the Mean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of Linked-Cours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Eun-Ju Chang, Hye-Seon Jo*

Dept. of Childhood Education,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과의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를 수강한 S대학교 예비유아교사들이 경험한 수업 탐색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29명은 2017-1학기 영유아교수법 과목에서 모의수업을 시연하였고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과목에서는 수업시연을 위한 교과교재 제작을 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스터디 그룹별 학습과정 저널과 개인 수업 포트폴리오, 포커스-그룹 면담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경험의 교육적 효과로 균형 잡힌 두 교과목의 연계로 효율적인 수업 집중이 가능함을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경험의 교육적 효과로 시행착오를 통한 교구 제작과 수업 준비로 연계지식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경험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깨달음은 유아교육 전공교과 연계형 수업의 중요성을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 중에 인식한 것이다. 넷째,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경험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깨달음은 연계한 그룹 조원들과의 상호 유대감 증진의 소중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과정에서 전공교과 연계형 수업 경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lectures experienc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t 'S' university who took the linked-cours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and examine its in-depth meaning. The 29 study participants demonstrated a mock class during the Early Childhood Teaching Method course and developed teaching materials for demonstration during the Early Childhood Teaching Material and Teaching Method course in the first semester of 2017. The researchers analyzed group-based learning journal, teaching portfolio and focus-group interview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und that the balanced linkage of two subjects enabled them to effectively concentrate on the course. Second, they were able to organize linked-knowledge by creating teaching materials and preparing for the course after learning from their mistakes. Third, the teachers became abl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experience of linked-cours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Fourth, they also got to understand the value of special bonds among group members. To summariz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of linked-cours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for their education course.

Key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Linked-cours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Study group,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Hye-Seon Jo(Shinhan University)

Tel: +82-31-870-3533 email: ssunyjo@naver.com

Received October 17, 2017

Revised (1st October 30, 2017, 2nd November 2,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1. 서론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1]. 지식 생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협력적인 지식 창출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2].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과 환경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대학은 이에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대학에서 통합교육 접근차원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 중 하나는 교수들 간의 협력과 협동 수업이다[3]. 한 예로 미국 톨리도 대학의 경우 교직과목 10학점을 3-4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바 있다[4]. 최근에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생의 창의적인 학습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스터디 그룹(study group)’이나 ‘튜터링(tutoring)’과 같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모임이 형성되고 있다[5]. 개별적 강의로 이루어지는 추상적 인지 학습보다는 현장 중심의 경험학습, 실제 또는 실천적이고 협력적인 지식 창출을 위한 ‘스터디 그룹’과 같은 학습 환경의 교육 시스템이 요구되어 진다.

학습을 주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소집단의 구성원들은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학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경향성이 높다[6]. 공통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관심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지식을 창출하며 공유하는 학습 집단이기 때문이다[7, 8, 9].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협력적인 지식 창출을 위해 예비유아교사 시절,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소그룹 활동을 통한 ‘스터디 그룹’ 협력 학습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하게 유아교육 전공과목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유아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아교사양성기관인 대학은 유아교육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 보다 깊고, 통합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수와 동료 학생간의 지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전략 혹은 시스템[10]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별적인 학습 형태가 아니라 그룹으로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식을 축적하여 조구성원 모두의 학습을 촉진하는 서로간의 지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이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얻어진 학습 성과는 구성원들 간의 공유와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협력적인 지식 창출의 기초가 될 것이다.

연계 강좌형 학습공동체(Linked-courses learning community)의 처음 시작은 미국 아이다호 주의 한 대학에서 대학 1학년의 영작문 강좌(English composition class)와 미국역사탐구강좌(Survey of U.S. history)의 연계강좌를 실시한 것이다[11]. 영작문 강좌 교수는 미국 역사 탐구 강의와 과제 내용 과제에 맞춰 작문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계 강좌는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강좌 간에 짝을 짓거나 교수자들이 공동으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고 강의내용과 과제제시를 협의하는 등의 다학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상호보완적인 활동이다. 각각의 강좌 내용과 강의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혼합하기 위해서 교과 연계형 강의는 공통의 주제가거나, 유사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던가, 아니면 한 강좌가 다른 강좌의 기술 혹은 기능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12].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 문화 풍토상 국내 대학의 문화적, 사회적, 학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공 안에서의 교과목 연계 강좌형 방식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7].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는 두 개 이상의 전공교과가 연계하여 수업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공유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전공이론과목+전공실기과목 또는 전공기초교과+전공심화교과를 연계한 후, 다양한 학습 내용과 결과를 소집단 형태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하였다. 교과목 연계 강좌형 방식을 선정할 때에는, 과연 어떠한 과목이 연계 가능한지, 연계를 통해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연계가 교육 환경 안에서 현실 가능한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전공과목 중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을 연계 강좌형으로 채택하였다. 두 교과는 전공기초과목과 전공심화과목 형태로 전공 연계형 과목으로 선정한 후, 두 과목의 담당 교수는 공동으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고 강의내용과 과제제시를 협의하는 주요 다학제적 연계와 강의 공간과 시간, 과제발표 및 제출 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도 조정하

였다. 이 후 두 강의를 동시 수강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총 6개의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에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였다.

유아교육 전공과목 중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이 연계 강좌형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강좌가 다른 강좌의 기술 혹은 기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12]. 영유아교수법에서 유아를 위한 모의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전개 마무리 하는 수업 과정에서 특정 주제와 특정 연령에 적절한 교재 교구를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수업에서 진행하였다. 두 강의를 유기적으로 연결가능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에 가능한 경우이다. 둘째, 유아교육 전공 영역에서 핵심적인 교과교육과목이기 때문이다. 교과교육과목은 학과별 교육과정 영역의 수업의 충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선별되는 과목이다.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지침에도 두 강의 모두 교과교육과목에 속해 있으며 교원자격 취득자의 전공과목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5년 대학 교과목 연계형 학습공동체 구축 모형 개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대학 문화 풍토 상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논의 한바 있으나[7], 약 10여년이 지나도록 실제에 대한 연구나 효과 분석에 대한 후속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교직과목에서 유아교육과 연계강화를 위한 개념도/반성적 저널 활용 사례연구가 있다[3].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로 두 과목의 강의를 연계한 경우가 아니라 교직과목 중 하나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 시간에 ‘유아교육에서의 교수설계’라는 주제로 개념도와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여 개념적으로 연계 학습을 도모한 것이다. 유아교육에서도 실천적이고 경험적으로 유아교육양성기관인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연계형 강의 실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 1”의 합이 2 이상의 결과를 산출하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직과목과 유아교육과 전공의 연계보다는 유아교육과 전공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강의를 경험하는 것이 예비유아교사의 실무 능력과 수업 실천적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경험 어려움들을 정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되묻는 활동을 할 것이다.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를 통한 모의수업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7-1학기 유아교육과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인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을 수강하는 S대학교의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언어교육’에서 조별로 모의수업을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수업자료 및 교구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었다.

2.2 연구 절차

본 연구 절차가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두 전공과목 연계 강의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학을 이용하여 연계형 강의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의 제언을 참고하여 공동으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고 강의내용과 과제제시를 협의하는 주요 다학제적 연계를 계획하였다. 이후 대학교와 강의 공간인 강의실과 요일 시간 등을 협의하여 연계형 강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모의수업 시연 순서와 과제발표 및 제출 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도 조정하였다. 이 후 두 강의를 동시 수강하는 예비유아교사들 자발적으로 총 6개의 소그룹을 형성하여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연구 참여자인 예비유아교사들은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를 처음 접하였으며, 전공교과과목인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과목에서 공통으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였다. 영유아교수법에서 하루 일과(all-day) 모의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교재교구들은 연계 강좌인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에서 스터디 그룹 활동으로 미리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인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을 동시에 수강하면서 실행한 모의 수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 그룹 학습과정 저널과 개인 수업 포트폴리오, 포커스-그룹 면

담 등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유형과 수집된 자료의 사용 방법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ata and Method

Kinds of Data	Method and Data of the Study	Data
Group-based Learning Journal and Teaching Portfolio of Participants	- Meaningful Events during Group Study and Reflection after Group Study - Journal after Other Member's Presentation of Mock Class - Review after lecture	Memos Journals Portfolios
Interview of Focus-Group of Participants	- Presentation of Group Study during Linked-Cours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 Meaningful Events during Group Study and Opinions of Members	Audio Files and Transcription of Focus-Group Interview
Note of the Researcher	- Comment of the Assessment and Field Memo for Lecturer of Linked-Cours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Field Notes, Memos, Assessment

2.4 자료 분석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인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을 동시에 수강하는 S대학교의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 29명 예비유아교사들의 스터디 그룹별 학습과정 저널과 개인 수업 포트폴리오, 포커스-그룹 면담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연구 수집 자료의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정독하였다. 자료들을 숙고적으로 읽기를 함으로써, 수집된 원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나 연구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찾아내는 개방적 코딩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주제와 더욱 관련 있는 단락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를 주요 단어로 의미부여하면서 연구 문제 관련 단어를 추출하고, 자료를 부호화, 범주화하여 반복적인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심층코딩의 과정을 거쳤다[13].

연구자 2인이 함께 연계형 강의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 느낌, 경험, 인식, 깨달음 등을 표현한 핵심 어구와 그 이유를 찾아가며 반복, 분석적으로 읽고 키워드를 메모하였다. 유사한 속성으로 모아 개방범주 4개, 유형 9개로 나누었으며, 이 후 심층적으로 내용분석을 하여 4개의 심층범주를 도출해내었다. 4개의 개방 범주는 ‘균형적 연계’, ‘문제 해결’, ‘연계 경험’, ‘사회적 기술’로 드러났으며, 4개의 심층 범주는 ‘효율적인 수업

집중 가능’, ‘시행착오를 통한 연계 지식 구성’, ‘연계형 수업의 중요성 인식’, ‘스터디 그룹원 간의 상호 유대감 증진’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Data analysis process

Open categories		In-depth categories	
Balanced link	efficiency	Educational effect	A combination of two well-balanced curricula class concentration possible
	balance		
	concentration		
Problem solving	trial and error	Enlightenment through experience	Through trial and error, linked knowledge organization
	conflict		
	solve yourself		
Connection experience	linked needs	Enlightenment through experienc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linked-courses
	linked necessity		
	work together		
	solidarity		
Social skill	Interaction	Enlightenment through experience	Promoting mutual ties with associated study group members
	belonging		
	cooperation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을 상호 비교하여 검토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이 같은 자료 분석 과정은 연구 진행 과정 동안 순환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유아 교육 전문 교수 2인의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재검토를 병행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3.1 균형 잡힌 두 교과목의 연계로 효율적인 수업 집중 가능

연구 참여자들이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강의 시간에 교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 탐색, 활용 방법의 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된 것은 연계 강의인 영유아교수법 시간에 실제 모의수업에서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한가? 이다. A예비유아교사는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를 통해 실제 모의수업에 활용을 위한

교구를 만드는 것에 보다 집중하여 균형 있게 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던 것 장점으로 꼽았다.

[실제 모의수업에 교구 활용을 위한 집중]

수업 간에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구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재교구를 만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구를 (영유아교수법) 시간에 활용해야 하고, 또 모의수업을 계획할 때 ‘어떤 교구를 만들어야 더욱 이 수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에 더 의미를 두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수업 활동을 짜고, 계획을 하고, 재료 같은 것을 구하는 연구를 하면서 정말 내가 교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A예비유아교사).

위의 사례 제시된 것처럼 A예비유아교사는 교재교구가 단순한 활동 자료가 아닌 교육적인 가치에 중시에 두고 교구를 제작하고 실제 모의수업에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서[14], 실제 유아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전공교과 두 과목의 균형 있는 연계로 양쪽 수업 모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 B예비유아교사의 사례이다.

[연계형 강의에 동시 집중 가능]

연계되는 수업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양쪽 수업에 모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계획을 짜고 이렇게 교재교구 제작을 연구하고 그 걸로 수업을 바로 하고... 이런 과정이 짜임새 있게 계속 연결이 되니까요.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두 수업 모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사로서 꼭! 정말 교사가 되기 전에 꼭 경험을 꼭!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B예비유아교사).

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제작은 유치원 교사가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수업을 위하여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숙고를 통한 연구 결과로 짜임새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14]. C예비유아교사도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를 통해 두 과목에 모두에 동시 집중하는 경험을 성공적으로 해보는 것은 예비유아교사 시절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C예비유아교사는 연계형 강의로 두 과목에 지속적인 몰입이 가능하여 좀 더 깊게 수업을 되돌아보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경우이다.

[연계형 강의를 통한 지속적인 몰입]

영유아교수방법론 수업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수업이 연계되어 활동을 선정하고 그(영유아교수방법론) 수업에 적합한 교구를 만들어 보면서, 교구를 만들 때 유아에게 적합한 교구는 무엇인지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여러 부분까지 고민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창의적이고 새로운 교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한 많은 재료들을 보게 되었다.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고, 어디에 수업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C예비유아교사).

예비유아교사로서 자신의 수업과 교재교구의 연계에 대한 상호작용을 반복,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반성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 경우이다. C예비유아교사는 연계 수업으로 인한 주의 깊은 성찰로 교사로서 수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3.2 시행착오를 통해 교구 제작과 수업의 연계 지식 구성

하루 일과 모의수업 시연에 활용할 교재교구를 스토리 그룹별로 미리 제작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특히 ‘TV 동화’ 틀 만들기와 같은 제작방법은 정확하고 세세하게 나와 있는 참고 도서나 정보가 부족하였다. 충분히 탐색한 후 재료를 결정하고 교구를 계획하여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모의수업을 위한 교재교구를 제작하면서 예상을 빚나가는 과정을 경험하여 당황하였다고 한다.

[시행착오를 통한 배움]

민아: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좀 알게 되고 분명 겪어야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교구였는데, 재료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이게 수업에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연습하면서 황당했어요.

유림: 이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봐도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되게 쉽게 만드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이 정도면 만들겠지 했는데요.

민아: 정말 종이 말면 되는 건 줄 (다 같이 웃는다). 종이를 말아서 TV 동화 틀에 끼으면 동화 수업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주현: 우리가 만든 것 생각해보면 정말 제작방법이 1-30번까지 있어야 해요.

유림: 맞아요. 책에는 1-10까지 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지? 다 찾아 봤어요. 컴퓨터도 찾아보고, 전공서적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정말 다 똑같이 한결같이 1-10까지 밖에 없었어요. 진짜 TV동화들을 만들어서 수업을 해보았을까요?(조별 집단 면담)

그러나 위의 사례 조원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정확하게 교구제작 방법을 알게 된 것 대해 당황스러움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배움의 자세를 보였다. 대략적으로 나온 교구 제작 방법은 오히려 재수정 과정을 양산하였으며, 실제 다음날 모의수업을 진행하느라 연습을 해보니 작동하지 않았다. 숨어있는 제작 과정을 함께 찾아가며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D예비유아교사는 처음 수업을 해보는 형식에 대해서는 막막함과 부담감이 컸다고 한다. 이러한 막막함을 극복하기 위해 D예비교사는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자인 교수들을 신뢰하고 여러 번 피드백으로 받으면서 동급과 같이 여러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모의수업을 교구 교재 제작을 통해 영유아교수법에서 적용하는 경험을 차근 차근해나갔다.

[직접적인 경험과 체계적인 깨달음]

올데이 수업에서 동급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활동으로 대본 선택부터 막 막 했으나 교재교구 연구법 교수님께서 여러 번의 피드백을 동급 대본과 준비물에 대해 해주심으로써 점차 다듬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해 보아도 수정 전의 대본과 마지막 수정 후의 대본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임을 느낀다, 유아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문장은 최대한 짧게 반복되게 스토리를 진행하며 동급 대본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라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D예비유아교사).

D예비유아교사와 함께 한 조원들 모두 동급 모의수업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었기에 막막하지만 동급 대본쓰기와 준비물 만들기, 동급 수업 진행 연습 등 여러 단계를 직접해볼 수밖에 없었다. 동급 대본쓰기와 동급 준비물 준비 만들기는 교재교구 및 연구법 강좌에서 교

수의 단계별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이어서 동급 수업 진행과 같은 수업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영유아교수방법 수업 시간에 발표와 평가로 지도 받았다.

위의 사례처럼 D예비유아교사는 실제 모의수업에 바로 사용하는 경우의 교구를 제작하여야 하기에, 교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계지식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고 교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려와 연결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3.3 전공교과 연계형 수업의 중요성 인식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제 경험해 본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를 통해서 전공교과과목인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의 활용과 적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 사례는 E예비유아교사가 실제 수업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교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연계형 강의의 중요성에서 찾았던 경우이다.

[실제 수업 연계 적용의 중요성]

교과교재연구법 과목 과제 수행 중 가장 좋았던 점은 영유아교수방법론 모의수업 과제와 연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수업에 적용해야 할 교구를 만들다 보니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교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여러 가지 조언 등으로 인해 올데이 수업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목을 통해 여러 가지 교구 재료와 그 사용법 활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E예비유아교사).

충분한 자료 탐색과 신중한 제작방법 선택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교재교구 제작 계획과정과 수업 적용에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직접 경험하여 인식하게 되었다[14]. F예비유아교사도 짜임새 있게 진행된 두 전공교과 연계 강의의 효율성에 대한 중요성을 포트폴리오 마침글에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였다.

[두 수업의 효율적인 연계성]

이번에 영유아 교수방법론 수업과 함께 병행하여 들은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수업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효율적인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저희를 생각하여 연계해 주신 점에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수업은 정말 1분조차도 놓치기 아까운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은 제 자신의 앞으로의 교사 경력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F예비유아교사).

F예비유아는 처음 접한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였지만, 전공교과과목인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의 유기적인 연결에 대해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3.4 연계한 스터디 그룹 조원들과의 상호 유대감 증진

다음의 G예비유아교사는 전공에서 연계 강좌를 공동 조별로 집중을 한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후에 교재교구를 제작하여도 실제 수업에서 적용하여 사용하려고 보면 허술한 부분이 보였는데, 같은 조원들이 두 수업을 함께 준비하다 보니 장점이 더 많았다고 한다.

[조원들이 함께 연계 수업준비를 하는 장점]

영유아교수방법론 수업과 연계해서 (교과교재연구법)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 수업이 따로 진행되었다면 너무 힘들고 시간에 쫓겨 교구를 세심하게 만들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모의수업을 한 동화수업 집단 교구는 사자 손인형과 악사, 배경을 만들었는데 전에 만든 것과는 다르게 배경에 색모래를 뿌려보고 손인형도 대걸레를 잘라가면서 만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펠트지나 색지로 잘라 붙이는 생각 밖에 못했지만 조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재료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튼튼한 교구를 만들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G예비유아교사).

다양한 재료와 제작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던 예비교사들은 모의수업에 사용할 교재교구를 결정한 이후에도 ‘어떤 재료로 제작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통해 더 좋은 교구를 고민하는 것[14]으로 나타났다. 특히 색지와 같은 단순한 재료에만 익숙하였던 예비교사들이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려면

안전하고 튼튼한 교구로 수업해야 유아들의 흥미 유발과 발달 특성에 더 적절함을 조별 토론과 수업 연계에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연계된 전공 강좌의 수업 준비를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된 인식은 수업 결과에 대한 만족감과 조원들과의 상호 유대감 증진이다. 전공에 대한 집중도 높은 수업준비와 협력 학습 태도, 창의적인 교구 제작 확대로 이어졌다. 다음 사례의 포트폴리오 반성적 글인 H예비유아교사 깨달음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인식 두 가지 내용이 모두 압축되어 있다.

[함께 수업준비 한 결과에 대한 만족감]

올테이 모의수업을 위한 조별 집단 교구는 개인 과제 가 아닌 조별과제라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각 보다는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여 나온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는 올테이 수업에서 요리활동과 동작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요리 순서도 만들기입니다. 일반 평면 순서도가 아닌 실물 순서도를 만들자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기도 했고 각 순서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원들과 힘을 합하여 생각해서 만들고 보니 정말 모두 뿌듯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으로 요리 모의수업 시연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H예비유아교사).

연구 참여자인 H예비유아교사는 학습 공동체 운영의 특성인 협력 학습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는 협업능력의 배양은 물론 전공에 대한 집중도 높은 토론과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 결과 모의수업 준비가 보다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다보니 조원들 모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의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인 영유아교수법과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을 수강한 S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들이 경험한 수업 탐색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의 기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경험의 교육적 효과로 균형 잡힌 두 교과목의 연계로 효율적인 수업 집중이 가능함을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유아교과교재 및 연구법 강의 시간에 제작하는 교재교구는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인 영유아교수법 시간에 실행하는 모의수업 시연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즉시 활용되어진다. 그 자리에서 교재교구와 수업의 효율적인 연결고리도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 두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교재교구를 단순한 놀잇감이 아닌 유아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며[14], 수업의 가장 중요한 환경임을 인지하고 교재교구의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예비유아교사의 고민은 제작과정과 모의수업 내내 연결되어 되어 있어 두 과목 모두에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경험의 교육적 효과로 시행착오를 통한 교구 제작과 수업 준비에 대한 연계지식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재교구를 제작뿐만 아니라 모의수업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업매체를 준비하는 단위 과목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유사하다[15, 16]. 그러나 연계형으로 두 강의가 실행되기에, 예비유아교사들은 모의 수업의 실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양쪽 수업 모두에서 집중하여 숙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 받으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시간, 집중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시행착오를 통한 교구 제작과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 해결안을 도출해내는 과정 중심의 학습 모형인 PBL(Problem-Based Learning)과 유사한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셋째,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경험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깨달음은 유아교육 전공교과 연계형 수업의 중요성을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 중에 인식한 것이다. 유아교육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를 통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모의 수업 경험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 두 과목 안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연결고리를 이해하여 이를

푸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 한다. 이 때 연계형 강의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강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수업 계획과 이에 따른 철저한 실행 그리고 검토와 반복 점검의 필요함을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 경험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깨달음은 연계한 그룹 조원들과의 상호 유대감 증진의 소중함으로 나타났다. 교재교구 제작 수업에서는 조별로 제작하기보다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14]. 한 단위로 이루어지는 유아교재교구 수업이었기에 조별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방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처럼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에서 공동으로 조가 이루어지면 보다 집중하여 양쪽 수업에 대한 책임을 조원들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다. 조원 모두 협력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모의수업과 교구제작에 임해야 양쪽 수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며, 두 수업을 모두 방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스터디 그룹의 협력 학습활동을 전개하여야만 다양한 의견들을 상호 교환되고 그 결과물들이 도출되기에, 협력적인 지식 창출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다른 유아교육 전공 과목과도 효율적이고 질 높은 연계형 강의를 경험해 봄으로써 유아교육과정의 재구조화하는 방법을 예비유아교사들이 익혀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4년제 대학교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례 연구이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연구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 및 결론을 해석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스터디 그룹 학습과정 저널과 개인 포트폴리오, 포커스-그룹 면담 등이 분석되었으나, 전공교과 연계형 강의에 대한 경험 부분은 자기 보고식의 글 쓰기만을 통해 분석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참여 행동이나 사고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밝히며 좀 더 심도 깊은 연구자료 수집과 기술, 분석을 통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Daum Encyclopedia,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21678>, 2017.

- [2] P. F.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pp. 17-20.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2001.
- [3] J. H. Sung, T. I. Kim, "A Case Study of Students' Construction of Concept Map with Reflective Journal for Understanding Connections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eaching Professional Subjec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9, no. 4, pp. 177-205, 2012.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2.29.4.177>
- [4] S. W. Park,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 Issues and Possible Direction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4, no. 2, pp. 145-173, 2007.
- [5] E. Y. Kim, A. Kim,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aning of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i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ontinuous participants of the Study group progra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3, no. 5, pp. 91-119, 2013.
- [6] Rogers, D. L., & Babinski, L. M. From Isolation to Conversation: Supporting New Teachers' Developmen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 [7] S. I. Na, C. B. Lim, M. Y. Lee, E. G. Lee, J. S. Kim, "A Model for Building the Learning Community in Linked Courses of College", Journal of Korean Agricultural Education, vol. 37, no. 4, pp. 303-318, 2005.
- [8] J. M. Seo,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Practical Education Programs through the Linkages between Liberal Arts, Major and Convergence-based Subject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35. pp. 129-143, December. 2013.
- [9] H. J. Lee, J. S. Kang, "A Study on Learning Community Management for Effective Knowledge Management",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 9, pp. 1-23, 2005.
- [10] Shapiro, N. S., & Levine, J. H. Creating learning communities ; A practical guide to winning support, organizing for change, and implementing program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9.
- [11] Minkler, J. E. *The Efficacy of Learning Communities at Two Community Colleges*. U. S., Idaho; Ph. D. dissertation, College of Graduate Studies University of Idaho, 2000.
- [12] S. W. Choi, "Exploring ways to revitalize learning communities in universitie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7, no. 2, pp. 71-91, 2004.
- [13] M. E. Graue, D. J. Walsh, *Studying children in context, Studying Children in Context: Theories, Methods, and Ethics*, p. 224-227, Sage Publications, Inc, 1998.
DOI: <http://dx.doi.org/10.4135/9781452243153>
- [14] J. S. Park, "Investigating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of making teaching material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6, pp. 418-430,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418>
- [15] H. J. Cho, D. G. Lee, "Meaning of simulated instruction on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vol. 13, no. 3, pp. 567-587, 2012.
- [16] J. H. Sung, T. I. Kim, "Analysis of Experience of Kindergarten Pre-Teachers' Lesson Plan Wri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7, no. 6, pp. 449-477, 2013.

장은주(Eun-Ju Ch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석사)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육교수법

조혜선(Hye-Seon Jo)

[정회원]



- 199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유아교사교육, 유아교육교수법